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후속 사업 방향 논의를 위한 공청회 개최

- 1기 사업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2028년 이후 후속사업 기획 방향 논의
- 국가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자원 구축 및 감염병 진단·치료기술 개발 방향 논의
- 항생제 내성·결핵·인수공통감염병 등 미해결 감염병 대응 연구 수요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남재환)은 10월 26일(월)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 후속사업 기획 공청회를 개최한다.

- * 마이크로바이옴 : 인간, 동·식물, 토양, 바다 등 다양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미생물과 그 유전정보를 포함하는 미생물 군집
- *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 : 난치성 감염질환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병원 연계, 임상 적용형 부처 협업사업 추진을 통한 연구 플랫폼 개발 및 한국형 표적 치료 후보물질 및 치료제 개발

이번 공청회는 현재 진행 중인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성과와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발전 방향과 후속사업의 중장기 추진 방향에 대해 학계·산업계·의료계 및 관계부처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공청회 개요 >

- ▶ (제목)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 2기 사업 기획 공청회
- ▶ (일시·장소) '26. 10. 26.(월), 강남세브란스병원 2동 3층 중강당(서울 강남구)
- ▶ (주요 내용)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 성과 및 후속사업 기획(안) 소개, 전문가 패널토의,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 ▶ (참석자) 관계부처, 관련 학회 및 학계·산업계·의료계 전문가
- ▶ (주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보건복지부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은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5개년 사업('23~'27년)으로, 질병관리청은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체 데이터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와 ▲데이터 분석·품질관리, ▲감염질환 대응 치료제 연구를 수행하고, 보건복지부는 권역별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환자 검체·임상정보 수집, 비감염질환 대응 치료제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국내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위한 데이터 인프라 기반을 마련하고, 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새로운 진단·치료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통해 마이크로바이옴 표준화 기반마련, 데이터 활용 인프라 확충, SCI(E) 논문 77편, 국내 특허출원 7건, 난배양 유용균주 273건 확보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대표성과로는 표준화된 마이크로바이옴 정보 6,486건을 수집·관리하는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통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자들이 질환 관련 미생물 특성을 규명하고 치료 후보물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난배양 유용 미생물 273주를 확보하고, 락티플랜티바실러스 플랜타럼 LP1 균주 등 신규 유용 균주를 발굴해 특허를 출원하는 등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 후보물질 개발의 가능성을 넓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1기 사업 주요 연구성과, 추진 현황, 후속사업 기획 방향 등을 공유하고, 전문가 패널토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국내외 동향과 정책적 수요, 연구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향후 관계부처 및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2028년 이후 추진을 검토 중인 후속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연구개발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후속사업은 기존 사업에서 축적한 데이터와 연구자원,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기반을 고도화하고, 질환과 마이크로바이옴 간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임상 및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다. 아울러

데이터의 표준화와 연계·활용, 연구기관 간 협력 강화 등 국내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이근화 국립감염병연구소장은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의 건강과 질환을 이해하고 새로운 진단·치료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중요한 연구 분야”라며, “이번 공청회에서 1기 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 현장과 산업계, 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축적된 데이터와 연구자원이 후속 연구와 실질적인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을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연구개발과 연구성과의 활용이 중요하다”라며,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연구자원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 및 의료현장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연구의 발전과 활용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 바이옴 연구개발 사업」 2기 사업 기획 공청회 세부일정

<별첨>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 바이옴 연구개발 사업」 공청회 발표자료

담당 부서	국립감염병연구소 인수공통감염연구과	책임자	과 장	박상희 (043-913-4850)
		담당자	사무관	변종석 (043-913-4865)
			연구원	송수진 (043-913-4863)



Clinical-based Human Microbiome Project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 2기 사업 기획 공청회

2026. 10. 26. Mon 15:00

강남세브란스병원 2동 3층 중강당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1)

시간	프로그램	사회자: 김도균 교수 (연세대학교)
15:00-15:20	• 개회사 채학열 센터장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	
	• 축하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장	
	• 격려사 김용욱 병원장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신명근 이사장 (대한전담점심학회) 김재석 이사장 (대한임상미생물학회)	
	• 내빈소개 사회자	
	• 사진 촬영	
15:20-15:30	• 연구 과제 개요 정석훈 대표 (주식회사 에이아이엔)	
15:30-16:00	•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 2기 기획안 이광준 교수 (연세대학교)	
16:00-16:15	• Break Time	
16:15-16:45	• 패널 토의 좌장: 정석훈 대표 (주식회사 에이아이엔)	
	• 패널 이동우 교수 (연세대학교) 정세리 교수 (한림대학교) 설우준 교수 (중앙대학교) 윤상현 대표 (주식회사 바이오이) 이광준 교수 (연세대학교) 백영하 과장 (보건복지부) 박상희 과장 (국립보건연구원)	
16:45-16:55	• 질의응답	
16:55-17:00	• 폐회사 박상희 과장 (국립보건연구원 인수공통감염연구과)	

주관! **국립보건연구원**

주최! **주제이아이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보건복지부